

무더위에 잇따른 폐사...식탁물가도 '폭염 비상'

광주 7월 닭고기 값 10%↑...전국평균가 2년 6개월 만 최고 기록 한우등심 1등급 4.2%·삼겹살 5% 상승...삼복더위에 소비 늘어

삼복더위에 집에서 즐기는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닭고기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올 들어 2분기 전남 육계(肉鷄) 사육은 전년도 200만 마리 넘게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폭염으로 인해 폐사하는 가축 수도 크게 늘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1~30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닭고기 1kg 평균 가격은 439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73원)보다 10.6%(422원) 상승했다.

지난달 1일 닭고기 1kg은 전년도 13.9%(530원) 오른 4330원에 팔리기 시작한 뒤 초복(11일)을 사흘 앞둔 8일 4460원으로 뛰었다. 이 가격은 지난 27일까지 유지된 뒤 이후부터 전년 수준(4200원)을 회복했다.

초복을 앞둔 지난 7월1~9일 닭고기 1kg 평균 가격은 4367원으로, 전년(3800원)보다 14.9%(567원) 높은 수준이었다. 중복 기간인 12~21일 동안에는 전년(3925원)보다 13.6%(535원) 오른 4460원에 팔렸다.

한편 말복(8월10일)을 앞두고 육계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육계의 폐사 피해가 커진 탓이다.

여름철 소비가 많은 채소와 과일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0일 육계 소매가격은 kg당 5991원으로 2019년 1월28일 5992원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리던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올해 월별로 보면 육계 1kg 소매가격은 지난 2월 576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5309원까지 내려갔지만, 이달 들어 반등하면서 6000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달 29일까지 폐사한 육계 수는 18만 9651마리로 전체 폐사 가축의 65.1%를 차지했다.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의 육계 폐사 마릿수(629만2528마리)와 비교하면 3.0%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가정식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마지막 삼복더위를 앞두고 지난 한 달 동안 축산물 소매가격은 대부분 10% 안팎 올랐다.

7월 한 달 동안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한우등심 1등급 100g이 전년도보다 4.2%(340원) 높은 8500원에 판매됐다.

삼겹살(국산 냉장·100g) 가격도 지난해 7월

2171원에서 올해 2280원으로 5.0%(109원)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여름철 축산물 가격이 전년도보다 오른 건 삼시세끼를 '집밥'으로 해결하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 2분기(4~6월) 들어 일부 축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다.

2분기 전남 육계 사육 마릿수는 1827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211만 마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한우 사육 마릿수는 58만5723마리로, 전년도 4.3%(2만3697 마리) 증가했다. 전남지역 돼지 사육 수는 1.6%(1만8324 마리) 증가한 118만8924 마리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과 협력해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농협, 조합원 2100명에 코로나 극복 의료비 추가 지원

광주농협은 지난 28일 조합원 2100명 전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비를 추가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 규모는 총 2억1000만원이다. 지난 1월 14억4000만원에 이어 총 1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농협은 교육지원사업과 배당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조합원에게 총 85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조합원 자녀 75명에게 총 7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3년 하나마트 두암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북구 일곡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5호점을 내며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섭 조합장은 "이번 의료비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3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구례 벼 잎선충 발행 현장에서 드론 방제를 벌였다. 왼쪽부터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조재원 구례농협 조합장, 현용순 농협 구례군지부장. <전남농협 제공>

구례서 벼 잎선충 발생...농협 전남본부, 피해지역 방제 총력

구례에 벼 잎선충이 대규모로 발생,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30일 긴급 방제에 나섰다.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벼 잎선충이 발생한 논은 159농가 58ha로 구례군 벼 전체 재배 면적(2313ha)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 이렇게 많은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 농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원인을 찾고 있으나 종자, 토양, 농기계 등 다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벼 잎선충은 크기가 1mm 내외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주로 벼씨에서 월동한다.

피해증상은 벼 잎의 선단부가 흰색으로 변하면서 구부러지고 기형이 된 후에 점점 회색으로 변한다.

난알의 크기가 줄어들고 흑점미가 발생해 쌀의 수확량·품질이 떨어뜨린다.

전남농협은 구례농협 공동방제단을 긴급 투입해 3회에 걸쳐 긴급방제를 한다. 1회차(7월19~24

일)와 2회차(7월28~30일)에 이어 3회차는 이달 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18~20% 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흑점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벼 잎선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고품질쌀생산과 풍년농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상향

기존 1000만원→2000만원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용자의 지원 한도를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용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용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

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p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버팀목자금플러스 상담콜센터 1811-7500. /박기용 기자 pboxer@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잔류농약 항목 추가 지정

aT, 비축농산물 관리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9년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달 23일 잔류농약 항목까지 추가 지정받으며 농산물 관련 주요 검사항목 모두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비축농산물(쌀·콩·마늘·양파·배추 등) 약 70만을 연간 수매·수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실험실을 구축했다.

올해 10월부터는 통관 때 무역위표본검사 항목이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는 등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아 공사 자체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공급 예정 물품의 시료를 사전에 aT 실험실에서 받아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김춘진 사장은 "이번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잔류농약 추가 지정을 발판으로 '사전검사-국외검사-통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